

#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

수원 매화초등학교

6학년 김호연

어느 날 체육시간이었다. 우리 반은 엄청 들떠 있었다. 우리 반은 1반인데 2반과 축구시합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주환이 골을 넣어서 2반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체육시간이 시작되기 5분 전, 친구들은 실내화 가방을 손에 쥐고 줄을 서서 선생님께서 나가라는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야외에서 체육을 못한다고 하셨다. 미세먼지주의보 때문에 야외수업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교실수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다. 우리는 야유와 짜증을 퍼붓는 말을 하며 실내화 가방을 실내화 가방 보관함에 넣어놓고 자리에 가서 앉았다.

곧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수업종소리가 울리고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셨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수업하시겠다고 하셨다. 우선 선생님은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일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보았다. 한 학생이 손도 들지 않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생기는 조그마한 모래덩어리와 먼지들과 세균들이 우글거리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중국에서 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세먼지도 반 정도 된다고 하셨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며 나오는 뿌연 매연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긴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가 사는 수원의 미세먼지는 가장 심하다. 이유는 자동차의 증가율이 1위이기 때문이다. 서울에도 사는 사람은 많지만 수원에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더더욱 매연이 심해지겠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세먼지를 만들어 놓고선 건강을 위한다고 마스크를 낀다. 처음부터 걸어나거나 자전거를 탔으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낭비할 필요는 없을 텐데.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나 보다. 자동차는 운전만 잘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다. 사람들은 편하기 위해 자동차를 탄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년도는 1995년부터이다. 그때부터 측정한 것이라면 현재가 심하다. 하지만 측정하기 시작한지 전, 즉 1970~1980년에는 더더욱 미세먼지가 심했다. 그때는 집집마다 연탄을 썼기 때문이다. 연탄이라는 것은 검정색이면서 구멍이 다섯 개 정도 뚫려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시절 때는 지금의 보일러나 다름없다. 연탄을 때면 따뜻하다. 그러나 연탄을 피울 때는 엄청난 이산화탄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산화탄소는 미세먼지가 생기게 하여 기관지와 폐가 안 좋아졌다.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한 20~3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위험하다. 그때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어릴 시절, 비가 온 후 개서 날씨가 맑아지면 무지개가 뿔뿔하고 한다. 무지개는 일곱 색깔 반원 모양으로 하늘에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는 하늘의 무지개를 직접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현상이 당연하다고 말하신다. 엄마 아빠가 어릴 시절에는 하늘이 오염되지 않고 맑았다. 무지개는 오염되지 않고 맑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은 뜨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무지개의 환한 웃음을 보았던 것이고 현재 내 시절 때는 환경오염으로 아무리 비가 우렁차게 내려도, 비가 소곤소곤 말을 건넌 때도 다칠 대로 다친 환경은 쉽사리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큰 무지개를 보고 싶다. 언젠가 흐릿한 무지개를 본 적은 있다.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이고 폭포 속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본 무지개를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있다. 수원시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이유는 자동차 매연 때문이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반디클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다. 반디클이라는 수원 자전거를 마련하여 자전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반디클은 수원 어디에나 있으며

이것은 수원시 밖으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정말 실용적이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하실이나 집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안된다. 자전거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지하실이나 집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안된다.

금액을 충전해서 자전거에 붙여져 있는 바코드를 반디클 시스템으로 찍으면 자동적으로 빌릴 수 있다. 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는데 30분 이하로 탄 사람들은 300원, 31분부터 1시간동안 타면 600원 이렇게 30분 30분을 늘려가면 구구단의 3단처럼 300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돈이 계속 나간다. 탄만큼 탄 다음에 아무데나 주차하고 레버 같은 것만 잡아당기면 계산은 끝난다. 참 값싸고 편리한 것이다.

요새 아빠 엄마가 반디클이라는 것을 깔아 어디에나 있는 반디클 한 개를 골라 타서 직장으로 떠난다. 이런 모습이 보기 좋다.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그리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날을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언제나 체육을 야외수업에서 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우리나라가 노력을 해야 한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에서 나오는 한 가사이다. 이 중에서 화려강산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강과 산이라는 뜻이다. 이 말과 똑같은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다. 금수강산은 비단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강산이다. 즉 오염 없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쁜 강과 산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엔 금수강산이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해선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에 나무도 심어야 한다. 우리 자연을 지키면 우리나라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싶다.